

“한국불교 상징으로 거듭나길 발원”

무산스님 원로의원 ‘선출’

해성스님 대종사 법계 의결

10·27기념관 전통역사문화지구
호국불교기념관 건립 등 3단계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

종정예하 원로의장 스님 비롯
기금 전달 및 약정동참 줄이어

“대작불사를 통해 조계종 총본산이 한국불교의 상징으로, 도심 속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고 도량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화와 행복, 배려와 나눔을 주고 미움과 분별은 넘어서게 하기를 발원하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의 원만성취로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서원하오니 한량없는 가피를 주시옵소서.”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지난 1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에 참석한 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한 마음으로 성역화불사의 원만 회향을 발원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대작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정화하는 금향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모든 불자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한국의 불교문화를 널리 선양하게 되고, 개인은 근원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연이 되고 세계는 하나가 돼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본산 성역화는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자 호국불교와 평화불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본산이 성역화 됨으로써 다양한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조화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광화문, 경복궁, 북촌, 인사동으로 이어지는 수도 서울의 중심 문화벨트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총도감 지현스님은 성역화불사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성역화불사는 △1단계 10·27기념관 건립 △2단계 조계사 일대 전통역사문화지구 조성 △3단계 호국불교기념관 건립(봉은사) 등 오는 202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모연 기금 및 약정서 전달식도 이어졌다. 진제 종정예하와 원로의회의 의장 밀운스님은 성역화불사를 위해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원로의원 스님들도 정성을 보였다. 서울 조계사는 약정한 금액 100억원 가운데 16억5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약정한 5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해 주요 사찰에서 십사일만 약정서를 전달하는 등 활발한 모연 동참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3면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지난 16일 열린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에 참석한 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성역화 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선학원 분원 권리제한 ‘해제’ 중단, 5개항 특별조치 시행

종단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학원 소속 분원에 대한 권리제한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학원 탈종단 행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조계종은 지난 17일 공고를 통해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사찰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입학 △종단 장학혜택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 5개항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 특별조

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선학원 분원들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앞서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범등스님은 지난 10월28일 열린 제8차 100인 대중공사에 참석해 “선학원 이사진을 제외한 분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학원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종단의 권리제한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명시된 권리제한 조치 가운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각종 중

양중무기관 및 산하기관 총무직 등 2개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를 제한한다.

한편 종단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및 가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종단은 지난 17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즉각적인 항고를 비롯한 본안 소송 제기 등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 및 그 도제들과 함께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추후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테러 중단…희생자 명복 기원”

조계종, 파리 연쇄테러관련 논평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로 4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종단이 반인륜적인 테러 중단과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을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테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 기원했다. 이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희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인륜적인 테러와 폭력, 전쟁 종단을 촉구하며 “금번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국제사회가 더욱 성숙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태종(총무원장 춘광스님)도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발표, “이번 테러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인류의 이름으로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데 열외될 수 없음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은 인류가 함께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2016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12월9일 마감

- 용모 기간: 2015년 11월9일(월) ~ 12월9일(수)까지
- 용모 대상: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 분야: 단편소설 부문: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동화 부문: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시·시조 부문: 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평론 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불교문학에 한함)
- 상금: 단편소설 500만원 동화 300만원 시·시조 300만원 평론 30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당선작 발표: 2016년 1월 1일 신년특집호(당선작에 한해 개별통보)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 담당
- 문의: 02730-4489(신춘문예 담당)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6불교신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많은 응모를 기대합니다.

공고

(재)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

1. 종단이 2014년 7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종단의 사찰이나 스님들이 설립한 각종 법인들은 대다수 종단에 등록했습니다.
2. 그러나 유독 ‘(재)선학원’만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있어 많은 종도들의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선학원 이사회는 선학원 정관에서 조계종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을 함으로서 사실상 탈종단 행보를 견고하고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선학원에 등록된 사찰의 창건주, 분원장, 관련도제 등 약 1,500여명의 스님들은 조계종을 탈종하여 선학원이라는 신생종단의 승려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4. 종단은 선학원 정관을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선학원이 종단의 종헌종법을 존중하여 법인등록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 이제 선학원 문제는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종단은 선학원의 창건주, 분원장, 관련 도제스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스님들의 적극적인 역할만이 선학원 이사스님들의 마음을 돌이켜 선학원이 종단의 일원이 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6. 종단이 그동안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도제스님들에 대해 각종 규제를 해 온 이유는 이 스님들이 선학원 이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어 종단의 방침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종단은 탈종의 길을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종헌종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선학원 관련 각종 규제를 해제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들에 대한 각종 규제 해제 내용
- 1.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 2.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사찰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입학
- 3. 종단 장학혜택
- 4. 각종 증명서 발급
- 5. 종단 명칭 사용